

주일과 안식일

안식일 정의

주일과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, 주일 성수를 구원의 징표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다.

안식교, 안증회 등 안식일 강조

‘안식’(Sabbath, rest)이라는 말은 ‘멈추다, 그치다, 쉬다’는 히브리 동사(사우바스)에서 나온

창8:22, 때와 계절은 멈추지 않는다. 렘31:36 이스라엘은 끊어지지 않는다

‘안식일’은 말 그대로 ‘늘 하던 일에서 떠나 쉬는 날’이다.

일을 떠나 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(막2:27).

‘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안식 제도’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.

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

- a. 자신들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했다(출20:8-11):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했다.
 - b. 자신들의 구속자를 기억해야 했다(신5:15).
 - c. 우리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창조자와 구속자를 기억해야 한다.
- A.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다(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, 창1:5, 8 등).
- a. 창2:2-3 안식일(일곱째 날, 히4:4).
 - b.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이다. 변한 적이 없다(마24:20).
 - c. 아담, 아벨, 노아,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등과 같은 창세기 인물들은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지 않았음(창조 후 처음 2,500년 동안 법으로 지키지 않음).
 - d. 법으로 지키는 것의 의미: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(출31:14-15; 민15:32-36).
 - e.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(창1:15-17)은 안식일을 포함하지 않음.
 - f. 아담은 창3:19-20 전에는 일을 하지 않음.
- B. 창세기부터 사람들은 한 주를 이레 단위로 지킨 것으로 보인다(창8:10, 12).
- a.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수여 이전에도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으로 보인다.
 - b.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기록은 이미 그 당시에 안식하는 날이 알려져서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(출16:22-30).
 - c.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에서는 이레(주)가 시간 구분의 단위였다(창29:27).
- C.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(출31:13; 겔20:12, 19-21).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(세상)과 교회(그리스도인)와는 상관이 없다.
- a. 물론 안식일 법규는 모세의 사회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것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.
 - b.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(출31:14-15; 민15:32-36).
- D.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적이 없다.
- E. 유대인들의 규례인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의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으며 다른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된 적도 없다(사58:13-14). 안식일은 호2:11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 갈 때 다시 회복될 것이다(사66:23; 겔44:24, 46:1-3; 마24:20).
- F.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(출23:10-11; 레25:1-7).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자신이 모든 것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난한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년을 제정하셨다. 또 그분께서는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.
- a.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(BC 606-536)의 원인: 렘25:11-12; 대하36:21; 스1:1; 단

9:2).

- G.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명령하며(출20:8; 신5:12)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등으로 그것을 거룩히 구분하고 사적/공적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율법을 목상하는 것을 통해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였다. 또한 율법은 그 날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래서 그 날에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날 하던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. 그 날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므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세상의 오락을 위해 그 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.
- H.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다(눅4:16; 13:10 등). 구약 시대. 그분은 철저한 유대인(갈 4:4; 마5:17), 예수님이 지켰다고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다. 이제는 신약 시대
- I.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등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(행13:14-16; 42; 16:13; 17:2; 18:5). 그들에게는 일하는 날
- J. 교리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레에 하루를 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(막2:23-28).
- K. 주일 즉 일요일(첫째 날)은 결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다.
-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(마28:1)
 - 이 날 즉 주의 첫 날에 그분께서는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(요20:19).
 -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주의 첫 날에 모여서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(행20:6-11; 고전 11:20; 고전16:1-2)
 - 요한은 아주 엄숙하게 이 날을 지켰으며 그 날을 '주의 날'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(계1:10). 요한의 계시록 이후부터 이 날은 주일이라고 불렀다.
 - 복음 선포의 초기에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지켰지만 결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명절을 이방인이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(행15:28-29; 골2:16).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일을 경배 드리는 날로 따로 떼어 지켰다.
 - 한국에서는 주일을 유대인들의 안식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: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장로교의 영향, 칼빈의 장로교는 구약시대 율법의 신정정치를 구현한 것, 대단히 율법적이다.
 - 오락을 금하는 것은 좋은 일, 그러나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.
 - 주일(안식일) 성수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.
 - 구약 안식일의 영적 적용(실제적인 휴식을 위해, 원래 창세기 안식의 목적)
- L.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 준수: No!
-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(고후3)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(롬6:14).
 -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(거리 문제 약 1km, 전등, 차, 가스 레인지, 불 등)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다.
 - 안식교, 안증회 등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 발상
 -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(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).
- M. 반드시 주일에, 오전에만 예배드려야 하는가? No!
-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(골2:16-17).
 -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.